

[사회]

전남대 총장 당선자 논문 조사 결론 싸고

일부 교수 '조사위 구성' 문제 제기

외부기관 재조사 주장... 선거 후유증 시각도

전남대 김윤수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이 조사위원회를 꾸려 '문체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 일각의 논란에 대해 총장 선거과정의 양극에 따른 것이라 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남대 경영학부 최석신 교수 등 14명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 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다' 라는 제목의 글을 대학 내부 게시판 에 띄웠다.

이들은 "이번 조사위 결과는 연구 윤리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명, 구 성원의 이해를 구하기에 부족했다" 며 "총장 3명, 의대 2명, 외부인 2명 (김 당선자가 회장으로 있던 학회 소 속 교수) 등의 조사위원 인적 구성이 공정한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최

교수 등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맡길 것도 주장 했다.

농생대(농업생명과학대)는 김 당 선자가 소속된 단과대이며, 의대는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를 지지한 것 으로 알려진 현 강정재 총장이 소속 된 곳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두고 선거과 정에서 벗어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 는 목소리도 있다.

경영학부 정진필 교수는 내부 게시 판에 '왜 이 지경이 됐는가'라는 글을 통해 "(논란의 핵심 요인은) 이 쟁점 을 정과적으로 채색해 악용하려는 불 순한 의도와 문제 해결의 순서 및 질 차를 무시한 현 집행부의 졸속행정" 이라며 "조사과정에 대한 신뢰성 시 비가 해소되면 조사위원은 최소한 전문성, 독립성, 신의성실성 등 3가지

요건의 적격성(適格性)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총장 선거에서 김 당선자에게 5표 차로 뒤진 박형호 교 수 측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건축학 부 전득엽 교수는 게시판에 "당선자 의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근신하듯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연 구진실성을 규명하는 쟁점보다는 학 내갈등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저희들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라 고 써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 한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직 선제 총장제도의 폐해라고 여겨진 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연구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바람직한 일이지 만, 또 다른 의도가 개입했다면 유치 할 뿐 아니라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40mm 비

주말에도 장맛비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호우주의보 및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 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40mm 이내의 비교적 적은 비만 내릴 것 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4일 강원도(강릉시, 고 성군, 정선군)와 충청북도(제천시, 단 양군)에 호우주의보를, 경기도와 강 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령 했다. 또 25일 새벽에는 서울과 인천 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등 전

국 대부분 지역에 많게는 12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일요일(27일)까지 이어 질 것으로 보이며 월요일부터는 30도 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주말(26일)까 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mm 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 주·전남지역 25일 예상 강수량은 10~40mm,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예상 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한·일회담 문서 미공개

시민단체, 日 외무성 비난

일본 외무성이 '지난 1965년 한-일 회담을 기록했던 외교문서를 공개하 라'는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받고도 중요부분을 삭제한 채 이를 공개하 고, 서류상의 문제로 이의제기조차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유족 회'와 일본의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은 24일 광주 시 서구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분 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회담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하고 일본 정부 로부터 보관자료 6만여쪽을 받았지 만, 중요부분은 먹칠이 된 상태였다" 고 밝혔다.

돌풍·천둥·번개 7월 25일 (음 6월 23일) 

한 두차례 비가 후 오후에 점차 개 겠다.







광주	비후경	26~31℃
전남	비후경	25~29℃
전북	비후경	25~29℃
충청	비후경	25~30℃
경상	비후경	25~30℃
강원	비후경	25~30℃
제주	비후경	25~30℃
서울	비후경	24~30℃
부산	비후경	25~31℃
대구	비후경	25~29℃
인천	비후경	25~31℃
대전	비후경	25~31℃
충청	비후경	25~31℃
경상	비후경	25~31℃
강원	비후경	25~31℃
제주	비후경	22~27℃

서울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동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6:31 썰물 < 11:54
목포 밀물 < 19:16 썰물 < 07:21
여수 밀물 < 00:52 썰물 < 07:21
여수 밀물 < 13:49 썰물 < 19:41

▲해돋이 05:36 ▲해질 19:41 ▲달돋이 23:17 ▲달질 12: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날씨						
최저/최고	24/31	25/32	25/33	26/33	26/33	26/33

조선대 정상화 문제 논의
사학분쟁조정위, 특위 구성키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를 추 진 중인 조선대 등 4개 대학을 집중 논 의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4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사학분쟁 조정위는 전남 오후 장소도 알리지 않 은 제 10시간 가람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조선대, 상 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 4개 대학의 정 상화 방안을 다루기 위해 위원장을 뺀 10명이 풀로 나누어 2개의 특위를 구성하고, 각 특위가 2개 대학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날짜가 8월14일로 정해 졌다. 회의의 전까지 사학분쟁조정 위원은 특위 별로 실무적인 검토와

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 다. 정이사 선임은 8월14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과부도 8월 내 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애를 쓴다지 만, 8월초가 아닌 8월14일 이후라면 2 학기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음 주 초 대 책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이나 향후 계 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법인은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6월말로 끝난 뒤 사학분쟁조 정위의 이사 선임작업이 지연되면서, 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운영 되고 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호사랑 영어교육캠프’ 2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압촌동 광주영어마을에서 열린 '호사랑 영어교육캠프' 발대식에 참여한 초등학생 240여명이 활짝 웃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영어교육캠프는 3일간 열리게 되며, 학생들은 영어마을 안에 설치된 공항, 호텔 등 20여개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원어민 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2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6일 부터 이달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 원 및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300m이 상 음식점 1천9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나 한우로 속이는 등 허위표시 4

곳, 표시 누락 6곳, 원산지증서 미 보관 18곳 등이다. 전남지역에서는 K 회관(진도군), J가든(화순군), S회관 (장흥군) 등 3개 업체가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표시하지 않았고, S식당(고 흥군), K식당(영암군), F식당(순천 시) 등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분쟁 나기전 예방활동 하겠다”

신임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장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조 정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활동 을 강화해 광주·전남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신임 김세곤(55·사진) 전남지 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 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말합 이 생기기 전에 분쟁 자체를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관이 항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 는 사전 채널을 조성해 ‘안정’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 했다.

여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고 향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진심으 로 생각하는 행정은 물론 아시아 문화전당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도 힘 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 위원 장은 끝으 로 “상투 적일지 모 르겠지만 노사가 한 번만 더 서로를 생각한다면 타협 점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사 용자는 노동자를, 노동자는 사용 자를 생각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위 원장은 광주청 근로감독과장, 미 국 대사관 노무관, 목포지방노동 사무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위법”

광주지법

경찰이 상경 집회 참가를 지방에서 부터 원천 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 재강 부장판사)는 24일 상경 집회를 지방에서부터 원천 봉쇄한 경찰관을

민주노동당 지도체포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적 으로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민주 노동당 이석행 위원장 등 지도부 3명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은 지난 2 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 구하는 불법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불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민(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2008년 8월 7일

2008년 8월 14일

3008년 8월 14일

전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

전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

전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